

“조선어 신 철자법” 일부 개정에 대하여

1. 로 “아, 어, 여(앗, 엇, 옛)”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이간의 끝 음절 고음

- (1) 가) ㅏ ㅑ 아 앓
 - 나) --(앞에 ㅏㅑ가 올 경우) 아 앓
 - (2) 가) ㅓ ㅕ 어 엇
 - 나) --(ㅡ음 뿐인 경우) 어 엇
 - 다) --(앞에 ㅓㅕ-ㅓㅕ 올 경우) 어 엇
 - (3) ㅓ ㅕ ㅕ ㅕ ㅕ ㅕ ㅕ (하) 여 잇
- (단, 받치ㅓ이 있을 때에는 ㅓ 이 엇)

2. 자웅(雌雄)의 뜻을 나타낼 때 종래 “남, 수”로 적던 것은 “양, 수”로 적는다. 예)

| | | |
|----|----|----|
| 양개 | 양닭 | 양늬 |
| 수개 | 수닭 | 수늬 |

(부기) 개별적인 어휘로 나타나는 “미리서마, 암막, 김리안” 등은 그대로 적는다.

3. 종래 “숫가라, 쇠갈, 이튿날, 사촌날”로 적던 말들은 각각 “숫가라, 쇠달, 이튿날, 사촌날”으로 적는다.

4. 종래 표준어로 인정되었던 다음의 말들은 아래와 같이 고쳐진다.
새로 정한 표준어 종래의 표준어

| | | |
|-----|------|-----|
| 곳 | (庫) | 곳 |
| 골 | (處) | 곳 |
| 우 | (上) | 위 |
| 도적 | (盜賊) | 도둑 |
| 빚 | (債) | 빚 |
| 모주리 | (醬) | 모조리 |
| 쪄다 | (曝) | 쪄다 |

5. 고유 명사 밑에 밑줄을 중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삼는다.